

1. 가르쳐 주세요

(틀림-가르켜 주세요, 아르켜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치다를 가리키다와 혼동해서 사용하시거나 심지어는 가르키다, 아르키다, 가리치다 등 사전에도 없는 말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의외로 너무 많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나 기술을 알려주는 것은 가르치다입니다. 가르치다는 가르와 치다로 그 어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르는 가루를 만드는 이치대로 문지르고 갈아서 마음에 맞게 다듬거나,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거나, 사람을 슬기로우므로 갈게 할 수 있다는 뜻과 말하다, 이르다, 가라사대 등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치다는 양을 치다, 소를 치다처럼 기르다, 돌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르치다는 말로서 타이르고 설득하여 돌보고 키운다는 깊은 뜻이 담겨있습니다.

(1) 지식이나 기능, 이치 따위를 깨닫거나 익히도록 설명하여 인도하다. 가르치다(to teach)

저는 한국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 그릇된 버릇 따위를 고치어 바로잡다. 가르치다

부모는 자녀가 어렸을 때 버릇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3) 교육 기관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다. 가르치다

노부부는 아들에게 대학 교육을 가르쳤다고 자랑하고 다녔다.

(4) 상대방이 아직 모르는 일을 알도록 일러주다. 가르치다

너에게만 비밀을 가르쳐 주마.

(5) 사람의 도리나 바른길을 일깨우다. 가르치다

선생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셨다.

한편 가리키다는 손으로 물건이나 방향을 알릴 때에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손으로 어느 것인가, 어느 쪽인가, 무엇을 집어서 보이거나 말하거나 알릴 때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1) 손가락 따위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집어서 보이거나 말하거나 알리다가리키다(to point out)

그는 손가락으로 북쪽을 가리켰다. 먼 곳을 가리키다.

(2)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집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내다. 가리키다

모두들 그 아이를 가리켜 신동이 낳다고 했다.

한마디로 가르치다는 teaching이고 가리키다는 direction(방향 제시)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가르켜 주세요. 갈켜 주세요.

아르켜 주세요. 알켜 주세요.

가리쳐 주세요.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수학을 좀 가르쳐 주세요.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음악 선생님

자녀를 잘 가르치셔야 합니다

교실에서 활용하기(도레미파솔, 솔파미레도 대신 노랫말을 바꾸어 활용하기)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일이삼사오, 육칠팔구십

우리 예절을, 우리 문화를
학습 목표를 노랫말로 바꾸어 도입 단계에서 활용하기
(2절 노랫말): 가리켜 보세요. 해와 달과 별
가리켜 보세요. 코와 입과 귀

2. 깨끗이 깨끗이

(틀림-깨끗히, [깨끄치]) [깨끄시]

가르치다 다음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잘못 발음하시는 깨끗이는 표준 발음법 제 13항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에 해당되어 분명히 [깨끄시]로 발음해야만 합니다.

또한 한글 맞춤법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에 해당되어 깨끗히가 아니라 깨끗이로 적어야 합니다.
-이나 -히로 끝나는 부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일차적인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로 적는 것

- ㄱ. 첩어 또는 준첩어인 명사 뒤..... 간간이, 겹겹이, 번번이, 살살이, 째째이, 나날이
- ㄴ. ㅅ 받침 뒤..... 깨끗이, 반듯이, 따듯이, 느긋이, 뚜렷이, 지긋이, 버젓이, 번 듯이
- ㄷ. ㄴ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외로이, 괴로이, 가벼이, 새로이, 즐거이, 기꺼이
- ㄹ. -하다 가 붙지 않는 용언 어간 뒤..... 헛되이, 실없이, 깊이, 높이, 같이, 많이
- ㅁ. 부사 뒤.....곰곰이(곰곰을 표준어로 삼았으나 곰곰이도 표준어로 인정하였음)
더욱이(더우기를 더욱이로 바꾸었음)
일찍이(일찌기를 일찍이로 바꾸었음)
오뎅이(오뎅이를 오뎅이로 바꾸었음)

(2) -히로 적는 것

- ㄱ. -하다가 붙는 어근 뒤(단, ㅅ 받침은 제외).....고요히, 똑똑히, 과감히, 꼼꼼히, 나란히
 - ㄴ.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가 결합한 부사가 들어든 형태.....익숙히익히, 특별히특히
- 잘못 발음하고 있는 경우

[깨끄치] 씻어요.

[깨끄치] 닦아요.

[깨끄치] 청소하세요.

[깨끄치] 정리해 주세요.

바르게 발음하고 있는 경우

[깨끄시] 씻어요.

[깨끄시] 닦아요.

[깨끄시] 청소하세요.

[깨끄시] 정리해 주세요.

교실에서 활용하기(손, 발, 머리, 엉덩이 대신 노랫말을 바꾸어 활용하기)

손뚝, 발뚝, 귀, 코, 옷, 신발...

공책, 연필, 책상, 책가방, 교실...
몸도, 마음도, 자연도, 우주도....

3. 꽃이 피었어요

(틀림-[꼬시] 피었어요) [꼬치]

꽃이의 발음도 깨끗이와 마찬가지로 받침을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하는 연음을 뜻하는 제 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꼬시]가 아니라 [꼬치]로 발음하여 연음 되는 받침은 본음대로 따라야 맞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꽃이를 [꼬시]로, 꽃을 [꼬슬]로 발음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 발음하고 있는 경우

꽃이[꼬시] 피었어요
꽃을[꼬슬] 심었어요.
예쁜 꽃이[꼬시] 피었어요.
꽃을[꼬슬] 꺾지 마세요.

바르게 발음하고 있는 경우

꽃이[꼬치] 피었어요.
꽃을[꼬출] 심었어요.
예쁜 꽃이[꼬치] 피었어요.
꽃을[꼬출] 꺾지 마세요.

교실에서 활용하기(빨간 꽃이, 노란 꽃이 대신 노랫말을 바꾸어 활용하기)

파란 꽃이, 보라 꽃이, 분홍 꽃이...
장미꽃이, 백합꽃이, 나팔꽃이...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나 좋아하는 꽃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기

한글 맞춤법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꽃-[꼰] 꽃이-[꼬치] 꽃을-[꼬출]
꽃밭-[꼰뻘] 꽃다발-[꼰따발] 꽃길-[꼰길]
꽃잎-[꼰닙] 꽃놀이-[꼰노리] 꽃 한 송이-[꼬탄송이]
꽃은-[꼬춘] 꽃아-[꼬차] 꽃만-[꼰만]
꽃밭에-[꼰빠테]

4.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세요(뜻 구별)

(틀림-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대체로 가지고 있던 물건이 없어지는 것을 잃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돈, 옷, 학용품 등이 없어진 것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이나 친구, 손아랫사람이 죽거나, 가는 길을 못 찾는 것도 잃다입니다.

한 번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잊다를 씁니다. 약속을 깜빡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숙제를

깜빡 잊어버리고 신나게 놀 때도 있습니다. 생각이나 마음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

오늘 숙제를 잃지 마세요
약속을 깜빡 잃어버렸네
길에서 지갑을 잊어버린 사람
자기 학용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바르게 사용하는 경우

오늘 숙제를 잊지 마세요.
약속을 깜빡 잊어버렸네.
길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
자기 학用品有限公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교실에서 활용하기(약속을, 학用品有限公司 대신 노랫말을 바꾸어 활용하기)

약속을-규칙을, 숙제를...
학用品有限公司-연필, 지우개 등 자주 잃어버리는 물건의 이름

5. 떡볶이

(틀림-떡볶기,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란 흰떡을 토막내서 고기와 양념을 섞어 볶은 우리 음식으로 많은 한국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렇지만 식당 메뉴 판에 떡볶이라는 음식 이름을 바르게 써 놓은 식당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잘못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떡볶이 발음이 [떡뽕끼]로 되기에 그런지 대부분 떡볶기나 떡볶이, 떡볶기로 잘못 써 놓았습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

떡볶기
떡볶기
떡볶기
떡볶이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맛있는 떡볶이
떡볶이 주세요.

교실에서 활용하기(떡볶이 대신 노랫말을 바꾸어 활용하기)

불고기 잡채
불갈비 각자 좋아하는 음식의 이름을 넣어 부르기

6. 나뭇잎이 떨어진다

(틀림-[나문이비] 떨어진다)[나문니피]

표준 발음법 제30항 규정에 의하여 나뭇잎이의 받침인 사이시옷 뒤에 이소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나

ㄴ]으로 발음하여 [나문닙]으로, 또 교은 모음 앞에서 본음대로 연음 시켜 발음하여 [나문니비]가 아니라 [나문니피]로 발음해야 합니다.

잘못 발음하고 있는 경우

[나문이비]

[나문니비]

[나문이피]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나문읖-[나문닙]

나문읖이-[나문니피]

나문읖을-[나문니플]

교실에서 활용하기(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신 노랫말을 바꾸어 활용하기)

일곱, 여덟, 아홉...

빨강, 노랑, 파랑...

여러 가지 숫자나 여러 가지 색깔...

7. 날마다 책읽기 재미있어요(독서 노래)

(틀림-날마다 책[익끼] 재미있어요)[일끼]

표준 발음법 제11항: 용언의 어간 발음 ㄹㄱ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이 경우에도 용언의 뒤에 오는 자음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발음된다. 즉 ㄷ, ㅈ, ㅊ 앞에서는 [ㄱ]으로 발음하되 ㄱ 앞에서는 이와 동일한 ㄱ은 탈락시키고 [ㄹ]로 발음한다.

[ㄱ]으로 발음하는 경우

맑다-[막따] 맑지-[막찌] 맑습니다-[막쑼니다]

늑다-[늑따] 늑지-[늑찌] 늑습니다-[늑쑼니다]

[ㄹ]로 발음하는 경우

맑게-[말께] 맑고-[말꼬] 맑거나-[말꺼나]

늑게-[늘께] 늑고-[늘꼬] 늑거나-[늘꺼나]

따라서 읽기의 ㄹㄱ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되어 [일끼]로 바르게 발음해야 합니다.

이 노래는 독서의 중요성과 독서 생활의 습관화를 강조하신 안중근 의사의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는 말쑼을 재미 한국학교 학생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든 곡입니다. 노래와 함께 재미있는 손동작도 하면서 독서 생활의 습관화를 기대해 봅니다. 어려서부터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독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독서와 예절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8. 웃어른께 존댓말

(틀림-웃어른) 웃어른

표준어 규정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 규정 제12항: 옷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그 동안 혼란을 일으켜 온 옷과 윗을 통일하고자 명사 위에 사이시옷이 결합된 윗을 기본으로 삼은 것입니다.

다만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기로 한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추어 위로 통일하고,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옷으로 통일을 한 것입니다.

표준어로 삼은 것- 윗도리, 윗니, 윗눈썹, 윗넓이, 윗몸, 윗목, 윗입술, 윗자리
 버린 것-(윗도리, 옷니. 옷눈썹, 옷넓이, 옷몸, 옷목, 옷입술, 옷자리)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표준어로 삼은 것-위층, 위쪽, 위채, 위치마, 위팔, 위턱
 버린 것-(옷층, 옷쪽, 옷채, 옷치마, 옷팔, 옷턱)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옷-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표준어로 삼은 것-옷어른, 옷돈, 옷옷
 버린 것-(윗어른, 윗돈, 윗옷)

이 노래는 학생들이 표준어인 옷어른이란 단어를 익히면서 옷어른과 선생님에 대한 예절 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만든 곡입니다.

교실에서 활용하기(옷어른 대신 노랫말을 바꾸어 활용하기)

할아버지께
 할머니께
 삼촌께
 고모님께.

9. 아가야, 고이고이 잠자라(자장가)

(틀림- 고히고히 잠자라) 고이고이

한글 맞춤법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이로만 나는 것 이

깨끗이, 번번이, 느긋이, 따뜻이, 반듯이
 산뜻이, 버젓이, 툼툼이, 고이, 번거로이

히로만 나는 것 히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엄격히, 정확히

이, 히로 나는 것 히

솔직히, 가만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꼼꼼히
 열심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도저히

아마도 이 노래는 세상에서 가장 부르기 쉬운 자장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매우 단순한 리듬에 어머니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귀여운 아기를 재우려고 조심조심 자장가를 부르는 모습을 담은 노래입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손길로 리듬에 맞춰 토닥토닥 아기를 재우는 어머니의 모습.....

아가는 아기의 소아어입니다. 아기의 눈 높이에서 어머니와 아기가 서로 다정스러운 노래를 주고받을 때 아가야하고 부드럽게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히 기른 딸 하나

바르게 사용하는 경우

고이 기른 딸 하나

활용하기(고이고이 대신 노랫말을 바꾸어 활용하기)

멍멍이도 잠잔다.

야옹이도 잠잔다.

꿀꿀이도 잠잔다.

코끼리도, 호랑이도, 아기 곰도, 얼룩말도, 아기 양도 등의 동물 이름

10. 예쁘게 웃으면(생활지도 노래)

(틀림-이쁘게 웃으면) 예쁘게

예쁘다는 생긴 모양이나 하는 것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기에 귀여운 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응석 받기로 자녀를 기르면 버릇없고 쓸모 없는 인간이 되기 쉽기 때문에 예로부터 예쁜 자식 매로(엄하게)키운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쁘다는 예쁘다의 큰말이지만 표준어는 예쁘다입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쁘고 귀할수록 엄하게 기른다.

바르게 사용하는 경우

예쁘고 귀할수록 엄하게 기른다.

이 노래는 어린이가 찡그린 얼굴을 하거나 무엇이 못마땅하여 짜증을 내거나 보채거나 할 때 불러 주려고 만든 노래입니다. 학교에서도 불평을 품은 얼굴로 군소리하는 학생이 있으면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로 간단하게 불러 볼 수 있는 곡입니다.

말을 할 때에도 밝은 표정으로 상대방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웃는 얼굴로 말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함께 노래하며 지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실에서 활용하기(노랫말 바꾸어 활용하기)

(2절) 예쁘게 말하면 아주아주 예뻐져요.

(3절) 예쁘게 인사하면 아주아주 예뻐져요.

(4절) 예쁘게 노래하면 아주아주 예뻐져요.

11. 무릎 붙이고(생활지도 노래)

(틀림-무릅, 무르비, 무르블) 무릎, [무르피], [무르플]

표준 발음법 제8항: 받침 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13항: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잘못 발음하는 경우

무릎이-[무르비]

무릎을-[무르블]

바르게 발음하는 경우

무릎이-[무르피]

무릎을-[무르플]

이 노래는 학생들의 바른 자세를 지도하기 위하여 만든 곡입니다. 앉을 때는 두 무릎이[무르피] 닿을 듯 붙이고 의자에 깊숙이, 허리와 가슴을 곧게 펴고 앉는 것이 좋습니다. 눈은 크게 뜨고 정면을 주시하며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바르게 앉아야 합니다. 말을 하거나 들을 때에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으면 학습의 능률도 오르고 건강에도 좋으므로 어려서부터 바르게 앉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활용하기

1절-노래와 무용하기

2절-허밍(humming)과 무용하기

3절- 무용 동작만 하기

12. 가나다라 마바사(한글 노래)

한글은 1443년(1446년 반포) 세종대왕이 만드신 글입니다. 처음에는 글자수가 28자인 훈민정음이었으나 지금은 24자를 사용하는 한글로 이름을 정하고, 한글이 태어난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내는 입, 이, 혀, 목의 모양과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밀하게 만들어낸 글자로 자음 14자, 모음 10자의 낱글자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모아쓰기 하도록 고안해낸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글입니다.

가나다라 마바사는 한글의 과학적인 특징과 독창적인 특징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쉬운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재미 한국학교 학생들이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 한글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배우기 쉽고 재미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곡입니다.

13 나는 나는 좋아요

(틀림-나는 나는 [조와요]) [조아요]

표준 발음법 제12항: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따라서 좋아는 [조아]로, 많아는 [마나]로 발음한다.

좋아요-[조아요]

많아요-[마나요]

쌓이다-[싸이다]

낳은-[나은]

놓아-[노아]

교실에서 활용하기(한 낱말이나, 세 낱말을 넣어 활용하기)

가로 시작하는 낱말.....가방, 가위, 가지 등

나.....나비, 나무, 나라, 나리꽃

다.....다람쥐, 다리, 다리미, 다이아몬드

라.....라디오, 라면, 라일락

마.....마차, 마늘, 마음

바.....바다, 바지, 바위

사.....사과, 사자, 사슴

아.....아기, 아기 곰, 아이스크림

자.....자동차, 자두, 자전거

차.....차표, 차고, 차바퀴

카.....카메라, 카네이션, 카멜레온, 카드

타.....타조, 타자기, 타잔

파.....파랑새, 파도, 파인애플

하.....하마, 하늘, 하나님, 하프

한.....한글, 한국어, 한국학교

14. ㄱ 과 ㄴ(기억과 아)

(틀림-ㄱ을 [기웁] [기억]) [기억]

(틀림-ㄷ을 [디은]) [디근]

(틀림-ㅅ을 [시웁]) [시웁]

(틀림-ㅌ을 [티글]) [티을]

한글 자모 스물네 자를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와 소리의 합성을 쉬운 노래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음 14개의 이름에서 기억, 디근, 시웁 세 개만 불규칙적이고 나머지는 모두 규칙적인 이름입니다.

교실에서 활용하기(학습 수준에 맞게 가사를 바꾸어 활용하기)

<초성(자음) 14자와 첫 소리 발음>

ㄱ[기억]-[그]

ㄴ[니은]-[느]

ㄷ[디근]-[드]

ㄹ[리을]-[르]

ㅁ[미음]-[므]

ㅂ[비읍]-[브]

ㅅ[시웁]-[스]

ㅇ[으응]-[으]

ㅈ[지읍]-[즈]

ㅊ[치읍]-[츠]

ㅋ[키읍]-[크]

ㅌ[티을]-[트]

[피읍]-[프]

ㅎ[히읍]-[호]

<중성(모음) 10자>

ㅏ[아] 소리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한글 자모의 이름을 연음 할 때는 그 받침소리를 연음 하되,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실제 발음을 반영시켜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해야 합니다.

더근이[디그시]	더근을[디그슬]	더근에[디그세]
지웃이[지으시]	지웃을[지으슬]	지웃에[지으세]
치웃이[치으시]	치웃을[치으슬]	치웃에[치으세]
키윽이[키으기]	키윽을[키으글]	키윽에[키으게]
티윽이[티으시]	티윽을[티으슬]	티윽에[티으세]
피윽이[피으비]	피윽을[피으블]	피윽에[피으베]
히윽이[히으시]	히윽을[히으슬]	히윽에[히으세]

준비물: 자모음 카드 24장(자음-14장, 모음-10장)

받침 없는 글자 카드와 자음 카드

초성의 자음은 신랑 역할, 중성의 모음은 신부 역할로 분장하고 카드를 제시하면 더 재미있고 쉽게 모아쓰기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받침은 아기 역할)

15. 훌륭한 임금님(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 노래나 이순신 장군에 관한 노래가 있지만 너무 어려워 재미 한국학교 학생들이 쉽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학교 눈높이에 맞춰 쉬운 노래로 만들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공부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였습니다.

세종대왕 - 1443년, 한글(훈민정음)을 만드신 임금님

이순신 장군 - 1592년, 거북선을 만들어 쳐들어온 일본군을 물리치시고 나라를 지키신 장군님
교실에서 활용하기

2절 노랫말: 훌륭한 장군님 이순신 장군

거북선 만들어 나라 지켰어요

16. 뿌리깊은 나무(재미 한국학교 교가)

(틀림- 아름다와) 아름다워

한글 맞춤법 제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 그러나 이러한 모음조화 현상에도 아름답다, 괴롭다, 안타깝다, 아니꼽다 등 어간이 2음절 이상인 ㅂ변칙 용언은 끝음절 모음에 상관없이 워로 적어서 아름다워, 괴로워, 안타까워, 아니꼬워 등으로 적습니다.

(1) 와 형(모음이 오인 단음절어간 뒤에 결합하는 -아의 경우만 와로 적음)

돕다 도와, 도와라, 도와서, 도와야, 도왔다

굽다 고와, 고와서, 고와야, 고왔다

(2) 워 형(와로 적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는 모두 워로 적음)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름다워도, 아름다워서, 아름다웠다

괴롭다 괴로워, 괴로워도, 괴로워서, 괴로웠다

안타깝다 안타까워

아니꼽다 아니꼬워

가깝다, 차깝다, -답다, -롭다, -스렵다 등도 같습니다.

틀리게 사용하기 쉬운 글자.....아름다워를 아름다와로 사용하기 쉬움

한국학교에서 활용하기 - 재미 한국학교의 교육 목표를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여 1학년12학년까지 즐겁게 합창할 수 있도록 만든 곡입니다.

안에 각 한국학교의 학교 이름이나 우리의를 넣어서 교가로 활용하기

뿌리깊은 나무 동요로 활용하기

무용으로 꾸밀 때 바르고 고운 예절 다 함께 배워서공수법을 사용하여 큰절하기

공수법: 어른 앞에서 두 손을 공손히 앞으로 모아 겹쳐 잡는 자세로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오게 겹쳐 잡으며 두 엄지손가락은 깎지 끼듯이 교차시킨다.

소노마카운티 한국학교 홈페이지(kssc.new21.net) 교가란에서 1절 Play'나 2절 play'를 클릭 하시면 한국학교 교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반주를 들으며 노래 연습을 하시려면 반주 play'를 클릭 하시면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뿌리깊은 나무를 애창하고부터 한국학교의 교육 목표와 정체성을 확립하여 더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려는 의지가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뿌리깊은 나무는 한국학교 학생, 교사와 학부모까지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한국학교 추억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1절 노랫말): 뿌리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

뿌리깊은 나무는 아름다워요.

바르고 고운 말

바르고 고운 글

바르고 고운 예절

다 함께 배워서

뿌리깊은 나무되자

우리의 한국학교

(2절 노랫말): 뿌리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

뿌리깊은 나무는 아름다워요.

내 꿈이 싹트는 곳

내 꿈이 자라는 곳

내 꿈이 아름답게

다 펼쳐지는 곳

뿌리깊은 나무되자

우리의 한국학교

17. 아리랑 고개(한국 민요풍)

(한국학교 어린이와 외국인 성인반을 위한 배우기 쉬운 아리랑)

아리랑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입니다. 아리랑 고개는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이라도 아리랑 민요를 연상하며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든 한국 민요풍의 곡입니다. 장단에 맞추어 흥겨운 노래와 춤을 추면서 즐겁게 한국어를 배워 봅시다.

대관령 고갯길처럼 굽이굽이 휘어져 있는 꼬부랑 고갯길을 우리는 흔히 아리랑 고개라고 표현합니다. 아리랑 고갯길의 아름다운 사계절 경치를 그려보면서 흥겹게 불러 봅시다.

교실이나 강당에서 활용하기

아리랑 고개를 합창하며 전체 큰 원을 만듭니다.

2명씩 손을 잡고 흥겹게 춤추며 짝을 바꾸어 인사를 나눕니다.

한국학교 특별행사의 처음이나 마지막을 장식하는 춤곡으로 활용합니다.

18. 쩡그리면 안 돼요(준말)

(틀림-쩡그리면 안 되요) 돼요

돼는 되다의 어간 되에 어미 어가 붙은 되어의 준말입니다.

준말 되어 돼
 되어서 돼서
 되어요 돼요
 되었다 됐다

그러므로 되어가 올 수 있는 자리에서만 돼가 쓰일 수 있습니다. 되어의 준말이 돼이므로 되었다를 뒀다로 써서는 안 됩니다. 되란 말 뒤에 어를 붙여서 자연스러우면 돼로 쓸 수 있지만 자연스럽지 못하면 되로 써야 합니다.

되로 써야 하는 경우(되에 어를 붙여서 사용할 수 없음)

되지
되고
되면
되더라
됩니다

이 노래는 되어요의 준말이 돼요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노랫말에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구분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되와 돼의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노래입니다. 2절 노랫말은 매우 긍정적이므로 1절과 2절을 바꾸어서 불러도 좋습니다.

교실에서 활용하기

2절 노랫말: 께소지으면 좋아요. 양보하면 좋아요.
 도와주면 좋아요. 정말 좋아요.

19. 태권도를 배우자(태권도 노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여 배우고 있는 운동인 태권도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기던 운동으로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가 서울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고 예절 바른 사람이 되게 해주는 태권도는 2000년 제27회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재미 한국학교 학생들은 태권도를 더욱 열심히 배워 미국 친구들에게 많이 가르쳐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교실에서 활용하기

2절 노랫말: 씩씩하게를 예절바르게로
 노래 마지막의 낮은 도 높은 도

20. 짹짹, 생일 축하(생일 노래)

생일을 축하하는 수많은 노래 중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Happy Birthday' 노래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생일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금희 작사 박상엽 작곡인 생일의 노래에는

햇빛처럼 찬란히 샘물처럼 드맑게 온 누리 곱게 곱게 퍼지옵소서.....

라는 노랫말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2세들이나 외국인들이 배우기에는 너무나 어렵게 생각되어 배우기 쉽고 재미있는 생일 축하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의 시작을 짹 짹 짹하고 2002 월드컵 4강 때의 손뼉치며 응원하던 마음을 함께 담아 생일을 축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교실에서 활용하기

[친구]의 생일 생일을 맞이한 친구의 이름을 넣어서 노래하기

2절 노랫말: (clap) Happy birthday to you

(clap)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친구 이름)

Happy- birthday dear (친구 이름)

21. 안녕하세요(돌림 노래)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바른 예의를 갖추고 살아왔습니다. 예절 중에서도 인사하기는 가장 기본적인 예절입니다. 누구나 웃어른을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악수를 할 때에도 웃어른이 먼저 청해야 하고 남자는 여자가 먼저 청해야 악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노래와 인사하기를 함께 지도하기 쉽습니다.

교실에서 활용하기

바르게 인사하면서 노래하기(평절과 큰절)

짹을 바꾸어가며 악수하면서 노래하기

짹을 바꾸어가며 허그하면서 노래하기

돌림 노래하며 인사하기

22. 감사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아무리 작은 고마움이라도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일은 좋은 예절입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로 충분한 말을 감사 드립니다.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모든 고마운 분들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합니다

고래, 새우, 금붕어.....물고기 등등

24. 엄마

(돌림 노래)

이 돌림 노래는 학생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목청 높여 마음껏 불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곡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 아빠(어머니, 아버지)를 신나게 불러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가족과 가까운 친척의 호칭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는 어머니, 아버지의 소아어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께 엄마, 아빠하고 정답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린 시절 특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실에서 활용하기(엄마를 어머니로, 노랫말 바꾸어 활용하기)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나는 아빠가 좋아요(아빠를 아버지로 노래하기)

언니, 언니, 언니, 언니 나는 언니가 좋아요.

오빠, 오빠, 오빠, 오빠 나는 오빠가 좋아요.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나는 누나가 좋아요.

형, 형, 형, 형 나는 형이 좋아요.

삼촌, 삼촌, 삼촌, 삼촌 나는 삼촌이 좋아요.

사촌형, 사촌형, 사촌형, 사촌형 나는 사촌형이 좋아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좋아요.

외할머니, 외할머니, 외할머니, 외할머니 나는 외할머니가 좋아요.

25. 해님과 바람(이솝이야기)

(틀림-헛님) 해님

해님은 해를 인격화하여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해님의 -님은 선생님의 -님이나 사장님의 -님처럼 남의 이름이나 명사 뒤에 붙여 높임의 뜻을 더하거나, 사람이 아닌 일부 명사 뒤에 붙여 그 대상을 인격화하여 높이는 접미사입니다.

해님을 헛님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것은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이시옷의 용법을 잘 모르는 데서 온 결과입니다.

사이시옷은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이거나,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그리고 셋방, 숫자, 횃수, 곳간, 찻간, 텃간의 두 음절로 된 한자어에서만 받치어 적습니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라도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넷가, 바닷가, 헛별, 전셋집, 찻잔 등),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제삿날, 아랫마을, 양칫물 등),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나뭇잎, 베갯잇, 예삿일 등) 등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와 가지가 합치면 나무까지로 된소리가 납니다. 이때 앞말인 나무에 ㅅ을 받쳐 나뭇가지라고 씁니다.

그러나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쓸 때에는 사이시옷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머리띠, 머리카락, 머리털 등)

교실에서 활용하기

동화를 들려주고 노래하기
해님 팀과 바람 팀으로 나누어 노래하기
동화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노래하기
역할극으로 꾸며 노래하기(해님 바람 나그네)
무용으로 꾸며 노래하며 춤추기
학예발표회 자료로 활용하기

26. 도레미 체조

무엇보다도 한국어 공부는 즐겁게, 재미있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학교는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 만든 스트레칭 맨손 체조 노래입니다.

교실에서 활용하기

<체조 순서>

도 - 발목 체조
레 - 무릎 체조
미 - 힙(hip) 체조
파 - 허리 체조
솔 - 어깨 체조
라 - 머리 체조
시 - 기지개 켜기 체조

27. 주님은 이렇게(복음 성가)

(틀림- 놀라와) 놀라워

2003년은 한국인의 미국 이민 100주년 역사를 기념하는 해입니다.

많은 재미 동포들이 꿈에 그리던 세계 최강의 선진국 땅에서 자녀들을 남부럽지 않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도달한 것도, 또 이 광활한 대륙까지 오게 된 것도 보이지 않는 은총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은 시간 시간이 기적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 기적과 같은 삶을 주관하시는 분의 놀라운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분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헤아릴 길 없는 감사가 밀려옵니다.

이 노래(복음성가)는 재미 2세들의 뿌리교육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한국학교 선생님들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입니다. 2세들을 바르게 교육하라고 하시는 사명에 감사로 응답하는 마음속 울림입니다.

한국어에는 모음조화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모음조화란 모음동화의 한 가지로서, 두 음절 이상으로

된 낱말에서 뒤 음절의 모음이 앞 음절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모음 또는 근사한 모음으로 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대체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그리고 중성모음은 양쪽에 다 조화되지만 음성모음과 조화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음조화 현상에도 예외의 말들이 있습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놀랍다 놀라워

가깝다 가까워

안타깝다 안타까워 등

따라서 주의 은혜 놀라와가 아니라 주의 은혜 놀라워가 맞는 말입니다.

28. 엄마 게와 아기 게(이솝이야기)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엄마 게와 아기 게가 살았어요.

아기 게는 엄마 게의 사랑을 담뱃 받고 자랐어요.

하늘이 맑고 아름다운 어느 날, 엄마 게가 아기 게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기로 하였어요.

엄마 게가 먼저 옆으로 걸었어요.

아기 게도 엄마처럼 옆으로 걸었어요.

아가야, 옆으로 걷지 말고 엄마처럼 이렇게 똑바로 걸어 보아라.

엄마 게는 다시 슬금슬금 옆으로 걸었어요.

아기 게도 다시 슬금슬금 옆으로 걸었어요.

아가야, 슬금슬금 옆으로 걷지 말고 엄마처럼 이렇게 똑바로 걸어 보아라.

네???.....

두 개의 집게발과 네 쌍의 발로 바닷가에서 옆으로 기어다니는 엄마 게와 아기 게의 이솝이야기를 동요로 만들었습니다. 요즈음 [게]를 [개]로 잘못 발음하는 것을 흔히 봅니다. [게]는 비원순전설중모음이고 [개]는 비원순전설저모음으로 [게(Crab)]는 [ge], [개(Dog)]는 [gae]로 구별이 되도록 발음해야 하겠습니다.

<혼동되기 쉬운 예>

[ge]	[gae]
게(Crab)	개(Dog)
가게	찌개
게시판	배개
휴게실	육개장

29. 토끼와 거북(이솝이야기)

해설자: 어느 따뜻한 봄날, 토끼와 거북이가 만났습니다.

토끼: 애 거북아, 우리 심심한데 달리기 시합(경기)을 할까?

거 북: 그래, 하자.

토 끼: 그림, 저 산꼭대기 나무까지 달리기로 하자.

거 북: 그래, 좋아.

해설자: 토끼는 짱충짱충 뛰어갑니다.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표준어 규정 제8항: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그동안 모음 조화 규칙에 얽매어 한쪽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발음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실 발음인 음성 모음화 현상을 인정하여 짱충짱충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예>

짱충짱충 (짱총짱총)

오뚝이 (오뚱이)

막둥이 (막뚱이)

쌍둥이 (쌍뚱이)

다만 현실적으로 부주, 사둔, 삼촌이 널리 쓰이는 형태이나 이들은 어원을 의식하는 경향이 커서 음성 모음화를 인정하지 않았다.

30. 양치기 소년(이솝이야기)

31. 개미와 베짚이(이솝이야기)

32. 청개구리(전래 동화)

33. 모음 찾기 노래(모음 찾기 게임-표하기)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을 때 처음의 글자 수는 모두 28자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 자모의 수는 자음 14자, 모음 10자로 모두 스물네 자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든 기본자 5자, 즉 ㄱ(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ㅋ(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ㆁ(입술의 모양), ㄷ(치아의 모양), ㄹ(목구멍의 둥근 모양)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습니다.

모음은 하늘의 둥근 모습을 상형한 점(), 평평한 땅을 상형한 가로획(—),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상형한 세로획(丨)을 서로 결합하여 만들었습니다.

모음의 순서와 이름은 ㅏ(아, a) ㅑ(야, ya) ㅓ(어, eo) ㅕ(여, yeo) ㅗ(오, o) ㅛ(요, yo) ㅜ(우, u) ㅠ(유, yu) ㅡ(으, eu) ㅣ(이, I)입니다.

이 모음 찾기 노랫말 속에는 10개의 모음이 다 들어가 있으므로 누가 먼저 찾나? 모음 찾기 게임을 하기 쉽도록 만든 노래입니다.

누가 먼저 모음 10개를 찾아 표했나?

모음 순서대로 찾아 번호 쓰기(110)

34. 낮, 낮, 낮, 낱(뜻 구별)

- (1). 낮[날].....풀, 곡식 등을 베는 ㄱ자 모양의 연장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회복)- 병이 낮다
 (회복)- 감기가 낮다
 (서로 건주어 좋은 점이 많다.)- 이것이 더 낮다
- (2). 낮[날].....낮과 밤, 한낮
 높이가 낮은 곳
 낮은 목소리
 온도와 습도가 낮다
 문화 수준이 낮다
- (3). 낮[날].....얼굴
 낮가리다, 낮가림
 낮간지럽다.
 낮두껍다.
 낮뜨겁다.
 낮부끄럽다.
 낮설다, 낮익다[난익따]
- (4). 날[날].....곡식의 알, 날알, 날가리
- (5). 날[날].....셀 수 있게 된 물건의 하나하나
 날날이[난나치]
 날말(단어)
 날자(자모)
- (6). 낮[날따].....현상이 일어났음을 뜻함
 병났다
 고장났다.
 생각났다.
- (7). 낱다[나타].....아기를 낳다.
 소문을 낳다.
 비극을 낳다.
 새끼를 낳다.
 알을 낳다.
 실을 낳다(실을 만들다)
- (8). 낚다[낙따].....고기를 낚다.(잡다)
 명성을 낚다.(얻다)
 이성을 낚다.(피다)

35. 반드시, 반듯이(뜻 구별)

한글 맞춤법 제57항: 발음은 같은데 뜻이 다른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이란 뜻을 나타내고, 반듯이()는 모양새가 기울거나 비뚤어지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고개를 가우뚱거리지 않고 반듯하게 들 때에 고개를 반듯이,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바르게 있을 때 자세를 반듯이라고 합니다. 의자에 반듯이 앉아라. 선을 반듯이 그어라. 네모를 반듯하게 그려라.도 반듯이를 씁니다. 반듯이는 반듯하다, 반듯하게 등으로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온다.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처럼 어떤 일이 틀림없이 그러하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반드시 라는 한가지 모양의 단어만 쓸 수 있습니다.

36. 배(뜻 구별)

우리말에는 발음 형태는 같거나 비슷하면서 뜻이 다른 단어를 구별하여 적어야 하는 동음이의어와 글자 형태는 같지만 뜻이 서로 다른 동형이의어가 있으므로 잘 구별하여 써야 합니다.

배라는 단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배나무에 열리는 과일 배(Pear)

사람이나 짐을 싣고 물에 떠다니는 배(boat, ship)

척추동물의 몸 가운데 부분 배(stomach)

곱절, 곱절의 배(It gets doubled, multiply)

등으로 글자의 모양은 같은데 여러 가지 다른 뜻을 나타내는 동형이의어입니다. 동음이의어나 동형이의어의 뜻을 구별할 때에는 소리의 길이나 앞뒤 말의 내용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동형이의어의 참고 자료: <긴 소리>

<짧은 소리>

돌:(바윗돌)

돌(돌잔치)

굴:(땅굴)

굴(먹는 굴)

눈:(겨울에 내리는 눈)

눈(얼굴에 있는 눈)

말:(언어)

말(타는 말)

밤:(먹는 밤)

밤(캄캄한 밤)

발:(창문에 치는 발)

발(손과 발)

별:(꽃을 모으는 별)

별(잘못 했을 때 받는 별)

새: 집(새의 집)

새집(새로 지은 집)

교실에서 활용하기: 단어 맞추기 게임- 단어의 뜻을 설명하면 단어 알아맞히기

그림카드 찾기 게임- 긴 소리와 짧은 소리로 단어와 그림 찾기

영어와 한국어 바꾸기 게임- 영어는 한국어로, 한국어는 영어로 답하기

37. 햇별과 햇빛(뜻 구별)

(틀림-햇별이{해빠시}, 햇빛이[해빠시]) [해빠치/햇빠치] [해빠치/햇빠치]

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나뭇가지, 냇가, 바닷가, 햇볕, 햇빛, 찻집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아랫니, 아랫마을, 잇몸, 냇물, 빗물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ㅇ 소리가 덧나는 것: 나뭇잎, 깻잎, 베갯잇, 뒤틀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콧병, 콧병, 전셋집, 찻잔, 아랫방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깻날, 제삿날, 훗날, 양칫물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ㅇ 소리가 덧나는 것: 예삿일, 훗일
3. 두 음절로 된 다음 6개 한자어(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콧간, 셋방, 숫자, 찻간, 헛수, 뒤틀

표준어 규정 제2부 표준 발음법 제17항: 받침 ㄷ, 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구개음화)

예를 들면 발은[바튼], 발을[바틀], 발에[바테]와 같이 모음 앞에서 본음대로 연음시켜 발음하되, 다만 모음 ㅣ 앞에서는 발이[바치], 발이다[바치다], 발입니다[바칩니다]와 같이 받침 ㅌ을 구개음[ㅊ]으로 바꾸어 연음시켜 발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햇볕이[해뻬치/헨뻬치], 햇빛이[해뻬치/헨뻬치]로 발음해야 합니다.

또한 햇볕이 밝게 비칩니다.와 햇빛이 무척 따갑습니다.도 모두 틀린 말입니다. 햇빛은 해의 빛을 말합니다. 햇빛이 밝게 비치다., 햇빛에 눈이 부시다., 햇빛을 보지 못하다., 설날의 아침 햇빛 등으로 씁니다.

햇볕은 해의 내리쬐는 뜨거운 기운을 말합니다. 해가 따갑게 느껴질 때 햇볕이 따갑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햇볕이 밝게 비칩니다.는 햇빛이 밝게 비칩니다로, 햇빛이 무척 따갑습니다.는 햇볕이 무척 따갑습니다.로 고쳐 써야 합니다.

38. 비행기 한 대

(틀림-날아간다[날라간다]) [나라간다]

나비야 동요에서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를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오너라.로 잘못 발음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새나 비행기가 공중을 날면서 가거나 오는 것은 날아가다, 날아오다로 쓰고 [나라가다], [나라오다]로 연음해서 발음해야 합니다. 날라는 물건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운반할 때 나르다, 나르니, 날라로 활용해서 씁니다. 따라서 날아간다는 [날라간다]가 아니라 [나라간다]로 발음해야 합니다.

한글 맞춤법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써야 합니다

한 개	비행기 한 대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연필 두 자루
집 세 채	나무 네 그루	풀 한 포기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제일과	삼학년	두시 삼십분 오초
오십팔회	육십칠번	이십이차
3년 6개월 20일간	35원	42마일

그러나 수효를 나타내는 개년, 개월, 일(간), 시간 등은 붙여 쓰지 않습니다.

삼 (개)년 육 개월 이십 일(간)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39. 바람개비(오른쪽과 왼쪽)

한국학교 교육과정에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 종이 접기를 통한 한국어, 태권도를 통한 한국어등 학교마다 다양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람개비 동요는 종이 접기 시간에 색종이로 바람개비를 만들어 날릴 때 부를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노래입니다.

바람개비 노래와 함께 바람개비를 만들어 날리며 자연스럽게 오른쪽, 왼쪽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오른쪽과 왼쪽을 배울 때 우측, 바른쪽, 바른편, 오른편, 오른손, 바른팔, 왼편, 좌측, 왼손 등의 표현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40. 나는 학교에 갑니다(생활지도 노래)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지는 기초적인 문장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먼저 영어와 다른 한국어의 문장 짜임새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한국어 문장은 대체로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으로 나타내지만 문장의 맨 뒤에 오는 서술어 외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영어는 대체로 주어+서술어+목적어의 어순으로 나타냅니다. 나는 학교에 갑니다. 노래를 통하여 문장의 짜임새를 이해하고,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갈 때나 외출 할 때의 준비하는 모습과 인사하는 방법을 지도할 수 있도록 만든 노래입니다.

교실에서 활용하기: 문장 만들기 놀이

- (1) 주어를 바꾸어 노래하기
- (2) 서술어를 바꾸어 노래하기
- (3) 주어와 서술어를 모두 바꾸어 노래하기

41. 별을 보러 갑시다(행진곡)

2. 달을 보러 갑시다.
3. 꽃을 보러 갑시다.

표준 발음법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 발음법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흔히 잘못 발음하고 있는 예

<표준 발음> <잘못된 발음>

꽃 - [꼐]	
꽃이 - [꼐치]	(틀림- [꼬시])
꽃을 - [꼐출]	(틀림- [꼬슬])
꽃으로 - [꼐츠로]	(틀림- [꼬스로])
꽃에 - [꼐체]	(틀림- [꼬세])
꽃 한 송이 - [꼬탄송이]	(틀림- [꼬단송이])
꽃길 - [꼐길]	(틀림- [꼭길])
꽃다발 - [꼐따발]	
꽃밭 - [꼐밭]	(틀림- [꿈뻬])
꽃밭에 - [꼐빠테]	(틀림- [꼬빠세])
꽃밭을 - [꼐빠틀]	(틀림- [꼬빠출])
꽃밭이 - [꼐빠치]	(틀림- [꼬빠티])
꽃잎 - [꼐닙]	(틀림- [꼬딕])
꽃 위 - [꼬 뒤]	(틀림- [꼐위])
꽃망울 - [꼐망울]	

42.푸름이 노래(청소년의 노래)

푸름이-청소년(teen-ager)을 대접하여 이르는 순수한 우리말 표현

아기 어린아이를 귀엽게 이르는 말 - (유아)

어린이 어린애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 - (아동)

푸름이 십대의 소년 소녀, 청소년을 대접하여 이르는 말 - (청소년)

젊은이 나이가 젊은 사람, 청춘기에 있는 사람 - (청년)

늙은이 늙은 사람 - (노인)

43. 그리운 고향

(틀림-너머가면) 넘어가면

넘어는 동사 넘다가 부사어로 쓰인 말입니다. 담, 산, 고개 같은 높은 곳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어떤 물건
의 위를 지나서 가는 것을 넘어가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다 등으로 씁니다. 고개를 넘어간다.처럼 동
작 개념을 담은 말로 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머는 산, 담, 고개 같은 가리운 물체의 저쪽을 가리키는 말로 장소나 공간 개념의 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넘어>

산을 넘어서 간다.- (동작 개념)

언덕을 넘어서 간다.- (동작 개념)

<너머>

산 너머 저 쪽(가리키기)- (장소, 공간 개념)

언덕 너머 저 쪽(가리키기)- (장소, 공간 개념)

44. 하나님, 감사합니다(기도 노래)

(끝에 두 번 아멘이나 세 번 아멘을 넣어 쉽게 활용하기)

한국어를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한 유치반 어린이들의 학습 활동 전후나 간식 시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기도 노래입니다. 어린이들이 주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드리는 기도 노래입니다.

- 노랫말: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2.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부를 잘 하게 해주세요.
3.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 튼튼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45. 5와 5 (손뽕치기 게임 노래)

표준어 규정 제18항: 다음 단어는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도 허용한다.

(ㄱ-원칙) (ㄴ-허용)

네 예
쇠고기 소고기

존대할 자리에서 대답하는 말 네를 감탄사라 합니다. 부르고 대답하는 말이기 때문에 호응감탄사라고 합니다.

전에는 예를 표준어로 삼고 네는 비표준어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서울말에서는 네가 오히려 예보다 더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표준어 규정에서 네와 예를 복수표준어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본 정신은 복수표준어를 많이 인정하여 국어 어휘의 폭을 넓히려는 데 있습니다. 쇠고기와 소고기를 복수표준어로 인정한 것도 같은 예입니다.

교실에서 활용하기

노랫말에 나타나 있는 숫자만큼 손가락을 펴고 손뽕을 바르게 치기

46. 봉오리, 봉우리(뜻 구별)

봉오리 꽃봉오리 [꽃뽕오리]

 맺히어 아직 피지 아니한 꽃

 희망에 가득 찬 젊은이의 비유

봉우리 산봉우리 [산뽕우리]

 산꼭대기의 뽕족한 머리

47. 사자와 생쥐(이솝이야기)

48. 욕심꾸러기 강아지(이솝이야기)

49. 모음 체조(짝 체조 노래)

한글의 모음은 하늘() 땅(一) 사람(丨)을 나타내는 기본 석 자를 합성하여 만든 글자로 우리 몸으로 글자 모양을 표현하기 쉬운 글자입니다. 짝과 힘을 합하여 모음 체조 노래에 맞추어 몸으로 글자 모양을 창의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모음을 첫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도 함께 찾아보게 합니다. 모음 ㅏ로 시작하는 말: 아기, 아이스크림,

50. 아기 새

아직 날지 못하는 아기 새가 엄마 새를 기다리는 모습은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 조그마한 부리를 한껏 벌리고 엄마 새가 올 때까지 엄마를 기다리며 찾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귀엽고 앙증스럽습니다. 엄마 새가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와 아기 새에게 나누어주는 모습 또한 한 편의 감동적인 동영상입니다. 우리는 더욱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여 이런 모습들을 소중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와 지구의 온난화 방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활용하기: 아기 새 각자 좋아하는 동물의 이름(아기 곰, 아기 벌, 아기 사슴 등등)

51. 하늘만큼 땅만큼(어버이날 노래)

이루 다 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를 하늘만큼 땅만큼 고마운 은혜로 표현하거나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고맙습니다 등으로 표현합니다.

어버이날(5월 8일)이 있는 5월이 되면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으로 시작되는 어머님 은혜와 낯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로 시작되는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곡을 애창하게 됩니다. 또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내 몸과 내 동생 낳아주시고 사랑과 수고로 길러주시네. 우리들 자라서 귀히 되라고 언제나 언제나 말씀하셔요 등의 노래가 있으나 모두 2세들에게는 노랫말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더 쉬운 노랫말의 어버이날 노래 하늘만큼 땅만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나 Mother's Day(1절-어머니) 행사, 또는 Father's Day(2절-아버지) 행사 등에서 합창곡으로 활용하면서 간단한 무용을 꾸미면 더욱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해요를 노래할 때는 두 손으로 메가폰 모양을 만들어 외치거나, 머리 위에다 커다란 하트 모양을 만들어 노래하면 가슴 뭉클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어버이 날 노래를 부르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한국학교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52. 봄여름 가을 겨울(재미 한국학교 졸업식 노래)

한국학교마다 학년이 끝나는 종업식에서 졸업식도 함께 거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졸업을 축하하는 마땅한 노래가 없어 만든 한국학교 졸업식 노래입니다. 졸업생은 물론이고 재학생과 학부모, 내빈이 함께 봄여름 가을 겨울을 합창으로 자랑스러운 한국학교 졸업을 축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곡의 노랫말처럼 우리 23세들이 세계에 도움되는 인격체로, 조국에 보탬이 되는 자랑스러운 Korean-American으로 자라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울러 봄, 여름, 가을, 겨울(춘하추동)의 네 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실에서 활용하기: 입학 축하 노래로 활용(노랫말)

봄여름 가을 겨울 한결같이
봄여름 가을 겨울 함께 배우며
세계에 도움되자 다짐해-요
조국에 도움되자 꿈을 키워요
한국학교 입학을 축하합니다.
한국학교 입학을 축하합니다.

53. 나무꾼과 선녀(전래 동화)

전래 동화는 2세들의 한국어 교육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습자료 중의 하나입니다. 전래 동화에는 조상의 지혜와 용기, 숨결이 녹아있어 역사적, 문화적인 언어발달과 정서발달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학교에서는 재미있고 쉬운 글로 쓰여진 전래 동화를 많이 찾아내어 학생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판에 모이거나 성질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군과 꾀 두 가지로 썼습니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서는 군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꾀 하나로만 통일하여 쓰게 되었습니다. 선녀와 나뭇군이 아니라 선녀와 나무꾼으로 써야 맞춤법에 맞는 말이 됩니다.

한글 맞춤법 제 54항: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된소리로 통일함)

<ㄱ- 표준어>	<ㄴ- 버림>	<ㄱ-표준어>	<ㄴ- 버림>
1. 심부름꾼	심부름군	1. 빗갈	빗갈
2. 나무꾼	나뭇군	2. 때갈	땃갈
3. 장난꾼	장난군	3. 맛갈	맛갈
4. 일꾼	일군	4. 성갈	성갈
5. 사냥꾼	사냥군	5. 곱빼기	곱배기
6. 사기꾼	사깃군	6. 귀때기	귓대기
7. 구경꾼	구경군	7. 볼때기	볼대기

8. 농사꾼	농삿꾼	8. 판자때기	판잣대기
9. 낚시꾼	낚시꾼	9. 코빼기	코배기
10. 팔꿈치	팔꿈치	10. 이마빼기	이맛배기
11. 발뒤꿈치	발뒷꿈치		
13. 멋쩍다	멋적다		
14. 겹연쩍다	겹연적다		

54. 옛날 이야기(학습 발표회 Operetta 곡)

한국어를 재미있게 배우는 방법으로 노래나 연극(역할극)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나 전래동화 등을 노래나 연극, 오페레타로 꾸며 학습 발표회를 할 때 막과 막, 장면과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합창곡으로 활용하기 쉬운 곡입니다.

학습 발표회에서 활용하기(한글 맞춤법 동요, , 권의 노래 번호)

- (7) 날마다 책읽기 재미있어요-안중근 의사 역할(플래카드: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
- (15) 훌륭한 임금님- 세종대왕 역할(왕관, 임금님 의상, 훈민정음 모형)
 훌륭한 장군님- 이순신 장군 역할(거북선, 장군 의상, 대검)
- (17) 아리랑 고개- 옛날 나그네 역할(두루마기, 갓, 개나리 붓짐, 짚신, 떡장수)
- (25) 해님과 바람- 해님, 바람, 나그네 역할(해와 바람 탈, 나그네 외투)
- (28) 엄마 게와 아기 게- 엄마 게, 아기 게 역할(게 모양 탈, 야자수)
- (29) 토끼와 거북- 토끼, 거북 역할(토끼, 거북 탈, 마라톤 선수 복장)
- (30)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 늑대, 양들, 마을 사람들 역할(양, 늑대 탈, 지팡이)
- (31) 개미와 베짚이- 개미 부부, 베짚이 부부 역할(개미, 베짚이 탈, 수레, Guitar)
- (32) 청개구리- 청개구리, 청개구리 엄마 역할(청개구리 탈, 무덤 모형)
- (47) 사자와 생쥐- 사자, 생쥐 역할(사자와 생쥐 탈, 그물)
- (48) 욕심꾸러기 강아지- 욕심꾸러기 강아지 역할(강아지 탈, 다리 모형, 고기 모형)
- (51) 하늘만큼 땅만큼-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역할(어머니, 아버지 의상, 하트)
- (52) 졸업식 노래- 졸업생 역할(졸업 가운, 졸업장, 플래카드: 축 졸업)
- (53) 나무꾼과 선녀- 나무꾼, 선녀, 사슴 역할(나무꾼 선녀 의상, 사슴 탈, 인형)
- (54) 옛날 이야기- 합창단 역할(어린이합창단, 학부모합창단, 청소년합창단)
- (60) 효녀 심청- 심청, 아버지, 용왕, 왕, 왕비 역할(심청 아버지 왕 왕비 의상)
- (62) 며칠 있으면- 할머니, 아기 역할(생일 잔치 소품, 플래카드: 생신, 생일, 돌)
- (64) 나에겐 꿈이 있어요- 의사, 경찰, 소방관, 우주인 역할(각자 꿈을 이룬 복장)
- (67) 설날과 추석- 어린이 농악놀이(모형 뽕과리, 소고, 모형 장구, 삼색 띠, 한복)
- (69) 금도끼 은도끼- 나무꾼, 신령님 역할(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나무꾼 신령 복장)

55. 멋쟁이(뜻 구별)

표준어 규정 제9항 붙임 2: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어떤 직업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을 나타낼 때에는 그 일이나 물건 이름 뒤에 -장이라고 붙입니다. 집을 짓거나 고칠 때 시멘트를 바르는 사람은 미장이, 페인트칠을 하는 사람은 칠장이, 벽돌을 만드는 벽돌장이, 톱질하는 톱장이, 그릇을 만드는 옹기장이, 토기장이, 돌로 물건을 만드는 석수장이, 간판을 만드는 간판장이 등이 있습니다.

그 외는 -쟁이로 멋있는 사람이나 멋을 부리는 사람을 멋쟁이, 욕심이나 심술, 장난꾸러기를 낮추어 욕심쟁이, 심술쟁이, 개구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쟁이, 겁쟁이, 고집쟁이, 수다쟁이와 점쟁이, 요술쟁이, 마술쟁이, 중매쟁이, 빗쟁이 등도 있습니다.

56.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국어에는 수 표현을 쓰거나 읽는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체로 대화나 사람을 셀 때와 나이, 시간 등을 나타낼 때는 고유어 숫자로 표현합니다. 특히 음력으로 날짜를 셀 때나 낮은 숫자를 나타낼 때는 고유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고유어로 날짜 세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엿새, 이레, 여드레, 아흐레, 열흘

한자어로 날짜 세기

일일, 이일, 삼일, 사일, 사일, 오일, 육일, 칠일, 팔일, 구일, 십일

교실에서 활용하기

하루 백 날까지 고유어로 노래해 보기

57. 호랑이와 사자(간접 화법)

58. 그네

한국학교의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그네를 타거나 그네를 밀어주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로 교실에서는 왈츠 춤곡으로 활용하기 쉬운 노래입니다.

59. 미끄럼

한국학교의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이용하여 미끄럼틀을 탈 때나 교실에서 미끄럼틀까지 이동할 때 부르기 쉬운 노래로 의태어의 맛을 살려 부르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60. 효녀 심청(한국 고대 소설)

61.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명수사)

한국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수를 셀 때 수관형사 뒤에 대부분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수량 단위 불완전 명사)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의존 명사란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말에 의지하여 쓰이는 명사로 불완전 명사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무 한 그루에서 그루나 풀 한 포기에서 포기등을 가리킵니다. 단위성 의존 명사를 명수사라고도 하며 그 앞의 수관형사와는 띄어 써야 합니다. 또한 명이나 살 같은 단위성 명사를 사용할 때는 하나에서부터 넷까지 수관형사의 형태가 변하는 것도 함께 지도해야 합니다.

형태가 변하는 수관형사

하나 한(학생 한 명)
둘 두(나이가 두 살)
셋 세(토끼 세 마리)
넷 네(장미 네 송이)

교실에서 활용하기: 수관형사의 수량을 바꾸어가며 노래하기

단위성 의존 명사를 바꾸어가며 노래하기(자루, 모금, 컬레, 대, 벌, 채 등)

62. 며칠 있으면(생신, 생일, 돌)

(틀림-몇 일 있으면) 며칠

수효가 확실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은 몇 사람 몇 개 등의 몇으로, 얼마 안 되는 적은 수효를 막연하게 나타내는 말은 몇몇 사람 몇몇 개 할 때의 몇몇으로 다음에 오는 말 앞에서 띄어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달의 몇째 날을 나타내는 며칠날의 준말은 몇 일이 아니고 며칠이 맞습니다. 몇 날을 나타낼 때의 몇 일은 틀린 말이므로 며칠로 조심해서 써야 하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제6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표준어>

1. 돌
2. 둘-째
3. 셋-째
4. 넷-째

<ㄴ- 버림>

1. 둘
2. 두-째
3. 세-째
4. 네-째

<비고>

1. 생일, 주기
2. 제2, 두 번째의 뜻
3. 제3, 세 번째의 뜻
4. 제4, 네 번째의 뜻

다만, 둘째는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 둘째로 한다.

<표준어>

1. 열두-째
2. 스물두-째

<비고>

1. 열두 번째의 뜻은 열둘째로
2. 스물두 번째의 뜻은 스물둘째로

그동안 용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 온 것 중 그 구별이 어려워 혼란을 일으켜 오던 것을 정

리한 것입니다.

전에는 돌과 뚝을 구별하여 사용했습니다. 돌은 생일을, 뚝은 주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돌잔치, 한글 반포 500돐 잔치처럼 세분하여 썼던 것을, 그러한 구분이 얼마간 인위적인 데다가 불필요한 세분이라 판단되어 새 표준어 규정에서는 생일이거나 주기 거나를 가리지 않고 돌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다만, 차례를 나타내는 말로 열두째, 스물두째, 서른두째 등 둘째 앞에 다른 수가 올 때에는 받침 ㄹ이 분명히 탈락하는 언어 현실을 살려 부득이 열두째, 스물두째, 서른두째로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만 -두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활용하기(2절 노랫말)

친구의 생일-한국학교에서는 생일을 앞둔 친구의 이름을 넣어서, 생일을 미리 축하해 주기.

63. 아지랑이

(틀림- 아지랭이) 아지랑이

표준어 규정 제9항: |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표준어>

1. -내기

2. 냄비

3. 동댕이-치다

<ㄴ- 버림>

1. -나기

2. 냄비

3. 동당이 -치다

<비고>

1. 서울내기, 신출내기, 풋내기

[붙임 1] 다음 단어는 | 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표준어>

1. 아지랑이

<ㄴ- 버림>

1. 아지랭이

아지랑이는 그동안 국어사전이나 교과서에서 아지랭이로 고쳐져 표준어로 행세해 왔으나 현실 언어가 아지랑이이므로 1936년에 정한 표준말 아지랑이로 되돌린 것입니다.

64. 나에겐 꿈이 있어요(나의 꿈 발표대회 노래)

차세대를 위한 올바른 정체성과 지도자 교육을 목표로 개최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 23차 휴스턴 학술 대회에서는 제1회 전 미국 나의 꿈 말하기 대회가 동시에 열려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학교에서 제2 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2세들이 한국어를 배워 한국과 미국, 나아가서는 세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세계인이 되려는 아름다운 꿈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 2세들이 아름다운 꿈, 고운 꿈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꿈을 설득력 있고 똑똑하게 표

현하는 용기 있는 자세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나만의 소중한 꿈, 날마다 다짐하며 바로 세우는 꿈, 크고 멋진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국학교 학생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나에겐에서 겐은 조사 게와 는이 합하여 준말로 본말은 나에게는입니다. 2006년에 유행하기 시작한 꼭짓점 댄스를 곁들여 흥겹게 노래하고 춤추며 나의 꿈 발표를 해봅시다.

교실에서 활용하기

노래하며 꿈을 생각하기

노래하고 춤추며 꿈을 다짐하기

노래와 춤에 곁들여 나의 꿈 발표하기

(노래와 춤)

나에겐 꿈이 있어요. 곱고 고운 꿈

나에겐 꿈이 있어요. 아름다운 꿈

(나의 꿈 발표하기)

학생A: 저는 박지성 같은 축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학생B: 저는 슈바이처 같은 소아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학생C: 저는 우주를 탐험하는 우주탐험가가 되겠습니다. 등등

(노래와 춤, 계속하기)

이웃을 돕는 꿈, 조국을 돕는 꿈(초급: 나라를 돕는 꿈)

세계를 돕는 꿈, 우주를 돕는 꿈

나에겐 꿈이 있어요. 곱고 고운 꿈

나에겐 꿈이 있어요 아름다운 꿈(노래와 춤과 발표 끝)

65. 빨간 풍선(색깔 이름 노래)

(틀림-빨강색, 빨강 풍선) 빨간색, 빨간 풍선

빨간 빛깔이나 빨간 물감의 색깔 이름을 나타낼 때는 빨강으로 표현합니다. 빨강은 빨강다라는 순 우리말 형용사에서 파생된 명사이고 빨간은 어떠한 명사 앞에 붙어서 운동 아주 등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빨강다의 관형형입니다. 빨간색에서 색이 명사이므로 관형형인 빨간이 오는 것이 적합하여 빨간색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빛깔이나 물감의 색깔 이름을 나타낼 때에는 빨강, 파랑, 노랑, 하양 등으로 쓰고 색앞에 관형사가 붙어 색깔을 나타낼 때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 등으로 표현해야 맞는 말입니다. 빨강 파랑 자체가 빨간색 파란색이라는 뜻이므로 빨강색 파랑색으로 쓰지 않습니다.

색깔의 이름

빨간 빛깔이나 빨간 물감의 색깔 이름: 빨강

파란 빛깔이나 파란 물감의 색깔 이름: 파랑

노란 빛깔이나 노란 물감의 색깔 이름: 노랑

하얀 빛깔이나 하얀 물감의 색깔 이름: 하양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활용

빨갳다 - 빨간 - 빨개서 - 빨강
파랳다 - 파란 - 파래서 - 파랑
노랳다 - 노란 - 노래서 - 노랑
하얏다 - 하얀 - 하얘서 - 하얇

교실에서 활용하기

(2절)- 파란 풍선- 파랑
(3절)- 노란 풍선- 노랑
(4절)- 하얀 풍선- 하얇

66. 1446년 10월 9일(한글날 노래)

(틀림-10월[십월]) [시월]

시월 구일은 세계 유일의 글자 생일날인 한글날로 지난해(2005년 12월) 국경일로 승격되어 매우 기쁜 날입니다. 다가오는 한글날은 한글 창제 560돌 축하 잔치로 훈민정음 반포 재현 행사 어가 행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훈민정음은 한글의 옛 이름으로 1913년 한글 학자이신 주시경 선생님께서 한글이란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진 훈민정음은 조선 제4대 임금인 세종대왕께서 연구하여 1443년(세종 25년) 음력 12월에 만드셨습니다. 1446년(세종 28년) 10월 9일 경에는 훈민정음을 백성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상에 널리 퍼서 알리고 퍼뜨렸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처음에는 스물 여덟 자를 만드셨으나 지금 너 자는 쓰지 않고 스물네 자만 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인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을 본떠서 만든 매우 과학적인 소리글자입니다. 또한 한글은 다른 글자를 모방하지 않고 세종대왕께서 독창적으로 새로 만들어내신 매우 조직적이고 독특한 글자입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약 3000여 개의 말과 100여 개의 글자가 있다고 하는데 글자를 만든 사람과 만든 때, 그리고 만든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진 글자는 오직 우리 한글뿐입니다.

유네스코는 1997년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선정하였으며 세계 문맹퇴치 공로상인 세종대왕상(King Sejong Prize)을 1990년부터 해마다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제 560돌을 맞이하는 우리글 한글, 볼수록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자랑스러운 한글을 더욱 사랑하고 밝게 가꾸어 영원히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한글날 노래는 최현배 작사 박태현 작곡의 노래가 있으나 재미 한국학교 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쉬운 노랫말과 곡으로 따라 부르기 쉬운 새 한글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어를 지도할 때는 한글의 역사와 문화, 과학적인 독창성을 노래와 함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10월은 일년 중 열째 되는 달로 [십월]이 아니라 [시월]로 발음합니다. 여섯 번째의 달인 6월이 [육월]이 아니라 [유월]로 발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글날 노래 노랫말- 최현배 작사, 박태현 작곡

강산도 빼어났다 배달의 나라
긴 역사 오랜 전통 지녀온 겨레

거룩한 세종대왕 한글 펴시니
새 세상 밝혀주는 해가 돋았네
한글은 우리 자랑 문화의 터전
이 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

1446년 10월 9일(한글 노래 노랫말)- 김혜서 작사 작곡

1446년 10월 9일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날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과학적으로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독창적으로
아, 한글은 우리의 자랑 거래의 자랑
아, 한글은 우리의 자랑 세계의 문화 유산

교실에서 활용하기(역사, 문화, 과학성, 독창성, 한류, 세종 학당 등과 연계해서 지도하기)

세종대왕에 대하여 조사 발표하기

1443년 훈민정음 창제에 대하여 조사 발표하기

1446년 훈민정음 반포와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하여 조사 발표하기

훈민정음 제자 원리(자음, 모음)에 대하여 조사 발표하기

모아쓰기 원리(초성, 중성, 종성)에 대하여 조사 발표하기

한글의 역사(주시경, 한글학회)에 대하여 조사 발표하기

한글날의 역사(가갸날, 기념일, 국경일)에 대하여 조사 발표하기

2절 노랫말: 1446년 10월 9일(반포일) 1443년 음력 12월(창제일)로 노랫말을 바꾸어 부르기

67. 설날과 추석(명절 노래)

설이 되면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라는 설 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새해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은 음력으로 1월 1일, 새해를 시작하는 정월 초하룻날로 고운 한복으로 설빔을 차려입고 차례를 지내거나 어른께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주고받는 즐거운 날입니다. 또한 설날은 흩어져 있던 가족이나 친척들이 함께 모여 떡국을 나누어 먹고 윷놀이나 연날리기, 제기차기, 널뛰기 등의 흥겨운 놀이를 하며 지내는 우리의 즐거운 명절입니다(New Year's Day)

추석은 음력 팔월 보름(음력 8월 15일)으로 한가위, 중추절이라고도 하며 설날과 함께 한국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햃과일, 햃곡식 등으로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차례를 지내거나 성묘를 하였습니다. 또한 흩어져 있던 가족이나 친척들이 함께 모여 송편을 나누어 먹고 농악놀이, 강강술래, 줄다리기 등의 흥겨운 놀이를 하며 지내는 우리의 즐거운 명절입니다(Thanksgiving Day)

2세들에게 한국어, 한국 역사,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학교의 교육 목표를 올바른 정체성 확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체성 확립의 뿌리 위에 가지가 뻗고 잎이 푸르러 2세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한국학교 교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국어를 비롯한 우리의 문화를 소중하게 이어가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국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날과 추석 노래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명절과 세시풍속을 이해하며 한국어로 낱자와 관련된 표현 방법을 함께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력과 음력

양력- 해를 보고 만든 달력(태양력): 1년을 365일로 하고 4년마다 366일로 함

음력- 달을 보고 만든 달력(태음력): 한 달을 29일 또는 30일로 하고 19년에 일곱 번 윤달을 둠

한국어로 낱자와 관련된 표현

년- 한자어 숫자로 표현(이천칠년, 천구백구십팔년)

월- 고유어 숫자로 표현(1월-정월, 11월-동짓달, 12월-선달)

한자어 숫자로 표현(일월, 이월, 삼월, 사월, 오월, 칠월, 팔월, 구월, 십일월, 십이월)

발음에 주의할 표현(6월- 유월, 10월- 시월)

일- 한자어 숫자로 표현(일일, 이일, 삼일, 사일, 오일.....삼십일)

교실에서 활용하기

설날과 추석 1절- 설 잔치에 활용

설날과 추석 2절- 추석 잔치에 활용

설 잔치나 추석 잔치 때에 우리의 소고로 흥겹게 소고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든 노래

68. 가위바위보(게임 노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위바위보 놀이는 누구나 좋아하는 놀이 중 하나입니다. 순서나 승부를 정할 때 손을 내밀어 두 손가락으로 가위 모양을 하면 가위, 주먹을 쥔 것은 바위, 주먹을 펴 내민 것을 보로 하고, 가위는 보에 이기고, 바위는 가위에 이기고, 보는 가위에 이기는 것으로 정하여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놀이로 승부가 확실하고 위험하지 않은 게임을 위하여 만든 노래입니다.

교실에서 활용하기(가위바위보 노래에 맞추어 가위바위보 게임하기)

옆에 있는 친구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친구가 진 친구에게 동물 흉내내기 시키기

옆에 있는 친구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친구가 진 친구를 간지럼 태우기

이긴 친구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최후의 승자를 찾아 재미있는 상을 주기

69. 금도끼 은도끼(전래 동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통하여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전래 동화는 한국어 배우기를 어려워 하는 어린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교육 자료입니다.

금도끼 은도끼는 정직하고 부지런한 나무꾼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 복을 받는다는 옛날 이야기로 구연 동화나 연극 또는 노래와 함께 오페레타 형식으로 꾸며 발표할 수 있는 재미있는 동화입니다.

2세들에게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재미있는 노래나 이야기를 많이 듣

게 하고, 많이 읽게 하고, 많이 이야기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ABC 노래를 부르며 ABC를 자연스럽게 배운 것처럼, 금도끼 은도끼 노래를 통해서도 정서적이고 바람직한 한국어 지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교실에서 활용하기

금도끼 은도끼 그림 동화 읽기

금도끼 은도끼 노래하기

금도끼 은도끼 동화 구연하기

금도끼 은도끼 연극 꾸미기(나무꾼, 신령님-마술할아버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금도끼 은도끼 오페레타 발표하기(무대장치-나뭇짐, 연못, 나무 등)